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 관계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arly and Mid-adolescent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김진경*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한유진**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Lecturer : Kim, Jin-K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Assistant Professor : Han, Eu-Gen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The subjects were two hundred and eighty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and second grade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were questionnaires about loneliness and other factors relevant to loneliness. Social support factors existing in an adolescent's external environment include the support of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as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was concerned with the adolescent's sense of self, school life, home environment, and family relation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 and teacher support,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home environment, and family relations between early adolescents and mid adolescents.
- (2) 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contentment with oneself, school life, home environment, and family relation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fifth-grade early adolescent's loneliness. Peer support and contentment with oneself, school life, and home environment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second-grade middle adolescent's loneliness.
- (3) Life satisfaction had a mediation effect between peer, parental, and teacher support and loneliness in fifth grade early adolescence. Whole life satisfaction had a mediation effect between only peer support and loneliness.

▲주요어(Key Words) : 외로움(loneliness),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주저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유진 (E-mail : yjhan@mju.ac.kr)

I. 서 론

현대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족 수의 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한 개별적 행동의 증가로 외로움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들이 점차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및 상황의 변화, 개인적 욕구의 변화가 있을 때 생겨난다(Peplau & Perlman, 1982). 외로움은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뤄지는 청소년기에 흔히 보여질 수 있는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청소년들 가운데 20~50% 정도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Brennan, 1982). 청소년기에는 친밀감이라는 욕구가 새롭게 부각되고(Sullivan, 1953)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망이 부재하면서 외로움이 나타나기 쉽다. 또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성인의 양가적 태도와 부적절한 역할 모델, 과도한 사회적 기대 등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며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Brennan, 1982). 또한 '주변인'이라는 모호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외로움이나 정서적 고립감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쌓일 때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나 폭식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청소년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Bowen & Chapman, 1996; Kaiser & Berndt, 1985)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외로움은 깊은 고립의 상태로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어린 시절 해소되지 못한 친밀감의 욕구로 인한 정서이다(Sullivan, 1953; Weiss, 1973). 외로움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Peplau & Perlman, 1982). 첫째, 외로움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둘째, 외로움은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결핍감을 의미한다. 즉, 외로움은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넓은 대인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정서라는 것이다(Cassidy & Asher, 1992; Margalit, 1994).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 관계의 부족에서 느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개인의 성격 특성의 역기능적 산물이라는 데 동의해왔다.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맥락 안에서만 보는 시각으로, 개인의 인성특성과 정서, 행동 등에 초점을 두었다(도현심, 1996; Asher & Wheeler, 1985; Cassidy & Asher, 1992),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 내 심리적 구조의 기능이지만 결국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심리과정만이 아니라 타인과 맺는 여러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Goldenberg & Goldenberg, 1980). 역기능적 행동과 정서는 단순히 내적인 병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외로움 자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므로 개인의 사회적 특성은 외로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근거해볼 때,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청소년의 외로움을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물질적, 정서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극복하고 심리적 적응을 하게 되며,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장미애, 1999; Dubow & Tisak, 1989). Dubow와 Ullman(1989)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아존중감 향상, 학업성취, 생활행 정보획득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단일차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Cohen & Wills, 1985). 부모, 친구, 교사는 청소년시기에 의미 있고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기존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에 따른 외로움(김광웅 · 조유진 · 정유진, 2005; 도현심, 1996; 박선영 · 도현심, 1997; 탁정미 · 이주희, 2005; Barrera, 1986; Bowen & Chapman, 1996; Cohn et al., 1991; Shaver & Rubenstein, 1980), 또래수용과 거부에 따른 외로움(최미경, 2006; 최보가 · 임지영, 1999; 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Crick & Ladd, 1993) 등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원과 외로움이 주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부모, 교사, 친구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친구, 교사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어떤 지지원이 청소년의 외로움과 더욱 큰 관련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발육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사춘기의 특성들이 발현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5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또한 청소년기 중반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외로움을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의 구도가 청소년기에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원이 부족한 청소년이 모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장미애,

1999; Dubow & Tisak, 1989; Thoits, 1986). 사회적 지지의 범위와 정도가 빈약할수록 외로움을 느낄 위험성이 높지만, 반면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정도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라도 어떤 청소년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개별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외로움은 그 정의에도 반영되듯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불만족감과 결핍감으로 유발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은 한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와 그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회적 관계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한다. 즉, 외로움은 객관적인 사회적 격리와는 다른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Peplau와 Perlman(1982)은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외로움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의 비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Teasdale(1997)은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만족해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송종용, 1988; Barrera, 1986; Turner, 1981; Wethington & Kessler, 1996). 청소년이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그들 자신이 만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해 부정적이며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지라도 외로움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만족도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해 생활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반응으로, 개인 스스로의 기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총체적 삶의 만족이란 특정차원(자신, 가족, 친구, 학교생활) 각각의 평가이상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한 측정이 요구된다.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운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의철 등, 1998; Richman et al., 1998). 청소년기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시기로, 이때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관계는 학교, 가족, 친구를 들 수 있다(이춘재 · 광금주, 1994). 가정은 태어난 이후에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도구적 요인도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과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인지적 학습활동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생활의 장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업성적은 전반적 생활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자기 개념을 들 수 있는데(Harter, 1989),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여러 차원들에서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이춘재 · 광금주, 1994). 이에 청소년 시기가 특히 자기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다는 전제하에, 외모, 능력, 사람됨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상과 관련된 내적 성격요인과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외적 상황변인 중 한 가지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사는 공간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생활 만족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뿐 아니라, 외로움과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심리적 요인 중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평가는 외로움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Rusell et al., 1980; Wheeler et al., 1983).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며, 또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Weiss, 1973). 이처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외로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초기 청소년과 청소년기 중반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구조 차이, 만족도의 차이, 외로움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와 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동일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느끼는 외로움이 달라지는지, 즉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만족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은 사회적지지(또래 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생활만족도(자기 자신, 학교생활, 사는 공간, 가족관계), 외로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또래 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생활만족도(자기 자신, 학교생활, 사는 공간, 가족관계)와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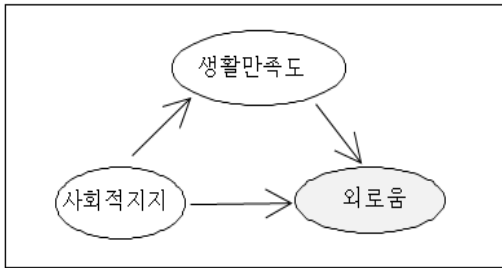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지지(또래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각 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144명과 중학교 2학년 146명 총 2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을 만 11세와 14세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미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을 청소년기 전반에 진입하는 전환적 시기로, 또한 청소년기 중반에 들어서는 시기로 중학교 2학년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질문지는 총 290부를 배부하여 283부를 회수하였고,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80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빈도(%)	
만 11세	남	61(21.79)	
	여	76(27.14)	
만 14세	남	71(25.36)	
	여	72(25.71)	
연 령	아버지	40세 이하	58(20.71)
		40~45세	156(55.71)
		45세 이상	66(23.57)
	어머니	40세 이하	72(25.71)
		40~45세	168(60)
		45세 이상	40(14.29)
학 력	아버지	고졸 이하	49(17.5)
		대 졸	182(65)
	대학원졸 이상	49(17.5)	
어머니	고졸 이하	71(25.36)	
	대 졸	168(60)	
	대학원졸 이상	41(14.64)	
직 업	아버지	전문기술직	30(10.71)
		사무관리직	125(44.64)
		판매서비스직	93(33.21)
		생산노동직	32(11.43)
	어머니	전문기술직	20(7.14)
		사무관리직	52(18.57)
		판매서비스직	39(13.93)
		생산노동직	22(7.86)
		주 부	147(52.5)

2.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9)가 제작한 'Social Support Scale(SSS)'를 번안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SSS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라 친구지지(14개 문항), 급우지지(11개 문항), 부모지지(6개 문항)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의 지지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부모지지의 문항을 활용하여 이를 구성하였고, 친구와 급우간의 구별을 하지 않고, 친구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회적지지 척도는 친구지지(14개 문항), 부모지지(7개문항), 교사지지(7개 문항)에 대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SSS는 각 문항별로 두 명의 학생을 대비시켜 '나와 비슷한 편이다', '나와 정말 똑같다' 중에서 다시 한 번 선택하게 하는 구조화된 대안 방식이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이러한 방식이 복잡하여 혼동을 일으킨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일한 4점 리커트 방식을 이용하되, '절대로 그렇지 않다'부터 '정말 그렇다'까지 4가지 응답 범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긍정·부정 문항이 골고루 섞여 있도록 배치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점수범위는 28점에서 112점까지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사회적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세부적으로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친구지지 .82, 교사지지 .75, 부모지지 .78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

청소년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순형과 이영미(1997)의 연구에 쓰인 생활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이춘재·곽금주, 1994)에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 학교와 집이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여가생활보다는 학교, 집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이순형과 이영미(1997)의 생활만족도 척도 중 여가생활 문항 1문항을 제외하고 사는 곳에 대한 5문항을 새롭게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에 대해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사는 공간',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외모, 능력, 사람됨으로 구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3문항, 학업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로 구성된 학교생활 3문항,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관계 3문항, 내 방, 우리집, 화장실, 가전제품(TV, 컴퓨터, 냉장고, 비디오 등), 집에서 먹는 식사 및 간식으로 구성된 사는 물리적 공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14문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만족도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 척도는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척도(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CLQ)를 토대로 도현심(1996)이 개발한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범위는 12~48점이며 높은 점수는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사전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문항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응답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10명과 중학교 2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사회적지지 척도의 경우 내용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항을 수정하고 응답의 리커트 척도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수정하였다. 또한 교사지지 측정문항을 고안하였고 친구지지와 급우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구성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문항 중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5가지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에 대해 아동학 교수 2인과 박사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서 5학년 2학급에서 144명과 2개의 중학교에서 2학년 2학급에서 146명 총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실시시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명을 들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그날 바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t-test, 상관관계, 단순회귀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만족도, 외로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집단의 사회적 지지, 만족도, 외로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총점 점수는 초등학교 5학년이 66.66점, 중학교 2학년이 62.15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지지는 초등학교 5학년이 24.69점, 중학교 2학년이 21.90점, 교사지지는 초등학교 5학년이 18.69점, 중학교 2학년이 16.70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또래지지는 초등학교 5학년이 23.28점, 중학교 2학년이 23.55점으로 중학교 2학년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만족도에 있어서 총합 점수에 초등학교 5학년이 54.42점, 중학교 2학년이 48.01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평균 10.02점, 중학교 2학년이 9.22점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10.96점, 중학교 2학년이 9.22점으로, 사는 공간(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19.92점, 중학교 2학년이 17.57점으로, 가족관계(정서적 환경)에 대한 만족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13.52점, 중학교 2학년이 11.77점이었다. 즉 모든 하위영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두 집단 간에 생활만족도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제외한, 학교생활, 사는 공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로움의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74.07점, 중학교 2학년이 74.01점으로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두 집단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적지지 및 생활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관계

먼저, 청소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와 만족도의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또래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나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은 작았다. 이 중 또래지지가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 가장 강력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었다.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은 주변 환경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 중 또래 지지만이 유일하게 청소년의 외로움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는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에 지속적으로 관련있는 사회적 지지원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로움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자기 자신,

<표 2>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만족도, 외로움

		초등5 M(ST)	중2 M(ST)	t값
사회적 지지	또래지지	23.28(4.31)	23.55(3.69)	-.53
	부모지지	24.69(3.33)	21.90(4.80)	5.40***
	교사지지	18.69(4.10)	16.70(4.76)	3.57***
만족도	자기자신	10.02(3.00)	9.45(2.51)	1.66
	학교생활	10.96(2.59)	9.22(2.07)	5.88***
	사는공간	19.92(4.72)	17.57(5.16)	3.78***
	가족관계	13.52(2.12)	11.77(3.23)	5.15***
외로움		74.07(13.55)	74.01(9.80)	.04

***p<.001

<표 3>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		
		또 래	부 모	교 사
외로움	초등 5	-.61***	-.24**	-.23**
	중 2	-.45***	-.13	-.01

p<.01, *p<.001

<표 4> 생활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관계

		만족도			
		자 신	학교생활	사는 공간	가족관계
외로움	초등 5	-.47***	-.60***	-.36***	-.25**
	중 2	-.40***	-.37***	-.38***	-.15

*p<.01, ***p<.001

<표 5> 사회적지지(또래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절 차		초등 5		중 2	
		β	R ²	β	R ²
1절차 (독립변인→매개변인)	또래지지→생활만족도	.30**	.08	.40***	.15
2절차 (독립변인→종속변인)	또래지지→외로움	.61***	.36	.45***	.19
3절차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또래지지→외로움	.47***	.52	.34***	.24
	2) 생활만족도→외로움	.44***		.26**	
1절차 (독립변인→매개변인)	부모지지→생활만족도	.29***	.08	.52***	.26
2절차 (독립변인→종속변인)	부모지지→외로움	.24**	.05	.13	.01
3절차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부모지지→외로움	.07	.37	-.11	.16
	2) 생활만족도→외로움	.60***		.46	
1절차 (독립변인→매개변인)	교사지지→생활만족도	.40***	.15	.16	.02
2절차 (독립변인→종속변인)	교사지지→외로움	.23**	.05	-.01	-.01
3절차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교사지지→외로움	.01	.30	-.06	.15
	2) 생활만족도→외로움	.55***		.42***	

*p<.05 ***p<.001

사는 공간(물리적 환경), 가족관계(정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로 구성된 학교생활 만족도가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자기 자신, 사는 공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외모, 성격, 사람됨을 의미하는 자기 자신에 만족도가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만이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3.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위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그리고 외로움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로움은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어느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절차에서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지지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후에, 두 번째 절차에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절차에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았다. 매개변인 투입시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감소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인 초기 청소년의 경우 독립변인 또래지지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0, p < .01$), 또래지지가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 = .61, p < .001$)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4, p < .001$), 또래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 = .61, p < .001$)보다 3단계($\beta = .47, p < .001$)에서 줄어들었다. 즉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대한 또래지지의 영향력($\beta = .61, p < .001$)은, 사회적 지지와 만족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영향력이

<표 6> 직/간접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초등 5	또래지지	.47	.30 × .44= .13	.60
	생활만족도	.44		.44
	부모지지	.07	.29 × .60= .17	.24
	생활만족도	.60		.60
	교사지지	.01	.40 × .55= .22	.23
	생활만족도	.55		.55
중 2	또래지지	.34	.40 × .26= .10	.44
	생활만족도	.26		.26

낮아졌다($\beta = .47, p < .001$). 생활만족도는 또래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와 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52%였다. 또한 종속변인 외로움에 대한 부모지지($\beta = .24, p < .01$)와 교사지지($\beta = .23, p < .01$)의 영향력은, 부모지지와 만족도, 교사지지와 만족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 외로움에 대한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생활만족도는 부모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 교사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와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37%였으며, 교사지지와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30%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 중기 청소년의 경우 독립변인 또래지지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0, p < .001$), 또래지지가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5,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26, p < .01$), 또래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 = .45, p < .001$)보다 3단계($\beta = .34, p < .001$)에서 줄어들었다. 생활만족도는 또래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와 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반면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에 대해서는 생활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사회적지지(또래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와 생활만족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매개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만 선택해서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간에 사회적지지, 만족도,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사회적지지 및 만족도와 외로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만족도, 외로움을 살펴본 결과, 우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교육역전상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외의 과외활동, 친구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직접 간섭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학교 때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며 자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지지에 있어서도 중학교가면 그 지지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줄어들었는데, 이는 학교의 구조와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때는 한명의 담임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면,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있지만 과목마다 교사가 달라지고 교사의 영향력이 초등학교에 비해 작을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별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혜경,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발달단계상 청소년기 중반에는 자기만의 세계와 가치관이 더욱 강력해지고 또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래지지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의 평균이 약간 높았다. 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지각된 지지 점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지각된 지지 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Furman & Buhrmester, 1985; Richman et al., 199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작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 중반으로 갈수록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주관이 더욱 강해지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녔던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는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와 오락을 함께 했던 가족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학업위주의 양육으로 부모의 모습이 변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는 공간인 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줄어들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소유욕이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로움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로움이 연령보다는 주변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는 정서 상태를 반영한다.

둘째,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모두 또래지지와 외로움이 가장 강력한 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친밀감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강한 시기로서,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또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소외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관계망의 주관적 결핍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경험되는 슬픔이나 우울한 느낌 즉, 외로움을 유발시킨다는 선행연구들(최보가 · 임지영, 1999; 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Crick & Ladd, 1993; Pelpau & Perlman, 198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는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청소년 중반에 외로움에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작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외로움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한 선행연구들(도현심, 1996; Cohn et al., 1991)과 맥을 같이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과 개인적 친밀감을 공유하거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학업을 고취시키는 도구적이며 실질적인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 중반에 부모나 교사 지지여부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와 외로움의 부적 상관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 사는 곳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보다 사는 곳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의 외로움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여부. 즉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소유여부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을 보였다. 이는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청소년은 또래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소유물 등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소유의 개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유의 개념이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며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불만족이 정서적 박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가장 관계가 깊었다.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외로움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사는 곳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상관이 높았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반해 학교생활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청소년의 외로움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가족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이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생활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인 초기 청소년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또래, 부모, 교사지지와 외로움 관계에 대해 모두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인 중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또래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양과 질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지라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따돌림이나 배척당하는 아동들도 단짝 친구가 있고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을 느낄 경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연구(Parker & Asher, 1993)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상위인지 지식을 개선시킴으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Reynolds & Wells, 1999; Matthews et al., 1999)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에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들이 외로움이 사회적 부적응의 지표라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외로움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은 미흡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로움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만족하는 훈련과 지도를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기에 따라 청소년의 외로움과 관련된 변인을 비교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고찰을 더욱 상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후기 청소년까지 연구대상으로 확장시켜서 청소년기를 시기별로 이들의 외로움과 관련된 요인들을 역동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 · 조유진 · 정유진(2005).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379-389.
- 김의철 · 광금주 · 김영신(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박선영 · 도현심(1997).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송종용(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 21-31.
- 이순형 · 이영미(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4(1), 1-24.
- 이춘재 · 광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장미혜(1999). 중 ·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06). 아동의 또래 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133-145.
- 최보가 ·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탁정미 · 이주희(2005). 초등학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141-155.
- Asher, S. R., Park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53, 500-505.
- Barrera, M. (1986). Distinc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41-666.
- Brennan, T. (1982). Loneliness in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69-290). N.Y.: Wiley-interscience.
- Cassidy, J., & Ahs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44-254.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80). 김혁표 · 김정택 공역(1988).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 of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aiser, C. & Berndt, D. (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he gifted adol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 Margalit, M. (1994). *Loneliness amo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rapy, research, coping, and intervention*. NY: Springer-Verlag.
- Matthews, G., Hillyard, E. J., & Campbell, S. E. (1999). Metacognition and maladaptive-coping as components of test anxie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11-126.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lpau, L. A. & Perlman, D. (Eds.) (1982).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Y.: Wiley.
- Reynolds, M., & Wells, A. (1999). The thought control questionnaire-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and relationships with PTSD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9, 1089-1099.
- Richman, J. M., Rosenfeld, L. B., & Bowen, G. L. (1998).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Social Work*, 43(4), 309-323.
- Ru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haver, P. & Rubenstein, C. (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2-73).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ullivan, H.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Teasdale, J.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and emotion: The mind-in-place in mood disorders. In D. M. Clark, & C. G. Fairburn(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67-93,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9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heeler, L., Reis, H., & Nezek (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943-953.

접수일 : 2008년 09월 12일

심사일 : 2008년 10월 0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31일